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5월 22일(주일) 제1394호

“자녀들 덕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윤형주와 함께하는 행복드림 콘서트 30명 세례신청
5월 22일까지 세례신청, 5월 28일 오후 3시 세례식

오히순 어르신은 이번 부모맞춤전도집회 ‘윤형주와 함께하는 행복드림 콘서트’(이하 행복드림 콘서트) 영상을 시청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서약했다.

“죽으면 천국도, 지옥도 없고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면 항상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서 좋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복 받기는커녕 오히려 손해 보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한이 되어온 것들을 풀어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날들이 괴롭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히순 어르신처럼 자녀들 덕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복드림 콘서트 참가자들의 세

례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월 20일 기준으로 어르신 30명이 세례를 신청했다.

배광자 어르신은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선물해 준 전자성경과 찬송가를 열심히 듣고 있다”고 했고, 이정순 어르신은 “이제 세례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영원히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만지 않는 부모를 전도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5월 중에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행복드림 콘서트 영상을 부모님과 함께 시청하면 된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1분 분량)와 꽃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행복드림 콘서트에서 결신한 부모들을 위한 세례식이 오는 5월 28일(토) 오후 3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4부 토요주일예배에서 진행된다. 이날 세례를 받고 싶은 성도와 부모들은 5월



곽현정 성도(서대문공동체)가 행복드림 콘서트에서 부모님(곽영모, 이희자)께 복음을 선물했다.

22일(일)까지 전도사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28일 오후 4시에는 동빙고 근린공원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풍이 있다.

문의: 02-3215-3214,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2022’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달려라풍당이 다음세대를 응원합니다!”

5월 29일까지 ‘네이버 폼’, 기부플랫폼 ‘체리’ 앱에서 참가신청
기독교 OTT ‘풍당’ 차세대 콘텐츠, ‘풍당교회학교 프로젝트’ 지원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이 구슬땀 흘리며 다음세대를 응원하고 있다. 이윤철 성도(OEM공동체)와 이한비 학생(OEM공동체, 중1) 부자는 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을 이용해서 달려라풍당 챌린지에 참가하고 있다. 이윤철 성도는 퇴근길 수동킥보드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5km를, 이한비 학생은 대중교통 대신 걸어 다니며 일주일에 10km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 이윤철 성도와 이한비 학생 부자는 기독교 OTT ‘풍당’의 〈바이블맨〉, 〈은강이와 은냥이〉와 같은 차세대들을 위한 콘텐츠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아직 달려라풍당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은 5월 29일(일)까지 ‘네이버 폼’과 기부플랫폼 ‘체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은 6월 6일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운동한 만큼 ‘풍당주일학교’를 후원하면 된다. 달려라풍당 후원금은 CGNTV가 전국 200개 교회에 교회학교 운영을 위한 장비와 콘텐츠를 지원하는 ‘풍당교회학교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달려라풍당 스페셜라이딩’도 한창이다. 5월 21일에는 수원, 평택, 부천, 대전에서 스페셜라이딩을 했다. 오는 5월 28일에는 부천, 인천, 세종에서 스페셜라이딩을 한다. 지난 5월 7일(토)에는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14일(토)에는 강동과 양지온누리교회에서 스페셜라이딩을 했다. 문의: 02-796-2243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온누리신문〉 말씀 해설과 중보기도 제목 모집

〈온누리신문〉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새로운 지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 지면이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 해설,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 등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온누리교

회 목사님들의 해설과 성도들의 중보기도 제목 등을 온누리신문에 게재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장(場)을 마련한다. 말씀 해설과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 홍하영 기자

2022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선착순 모집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6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막 오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어지는 집회실황을 각 캠퍼스에 송출한다.

6월 22일과 23일은 각 캠퍼스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24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다함께 모여 연합기도회를 한다.

6월 22일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23일 정

근두 목사(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총장), 24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2022 마리아행전 ‘하나님 나라’ 참가신청은 5월 28일(토)~29일(주일), 6월 4일(토)~5일(주일)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수요일예배(5월 25일, 6월 1일, 8일)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회비는 1만 원이다. 선착순 마감한다.

문의: 02-3215-3667, 320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기드온의 300 용사가 필요합니다!”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 연합중보기도팀 모집

대학청년부가 2022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연합중보기도팀 ‘기드온의 300 용사’를 모집한다. 이 땅의 예배와 선교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학청년부 연합중보기도팀 ‘기드온의 300 용사’는 5월 22일(주일)부터 6월 30일(수)까지 매일 밤 11시에 10분 동안 기도하는 ‘1.1.1 기도운동’을 한다. 6월 10일(금)과 17일(금) 오후 8시에는 중보기도회가 열린다.

2022 카운트다운 연합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청년들은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 포함된 구글폼으로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하단 QR 코드 참고). 지원서에는 ‘소속 공동체, 이름, 연락처’를 꼭 적어야 한다.

문의: 010-7667-4117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주일예배에서 이재훈 담임목사가 긴급한 기도제목을 공지했다. 김지호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이 코로나 19에 의한 ‘소아다기관 염증증후군’으로 생사를 다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김지호 학생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김지호 학생의 아버지 김일출 순장(일산공동체)이 딸이 생사를 다투는 순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힘, 중보기도가 만든 기적을 간증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기도의 배를 타고 시련의 강을 건너 왔습니다”

소아다기관 염증증후군 극복한 김지호 학생



성도들의 기도로 회복한 김지호 학생이 병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우리 지호 좀 살려주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우리 지호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지호 좀 살려주세요.”

생사를 오가는 딸을 앞에 두고 토해낸 김일출 순장의 기도다. 하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리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어리석은 거래와 같은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만큼 간절했다. 그때가 4월 28일 목요일이었다.

**우리는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셨다**

지호는 건강한 아이였다. 검도와 펜싱 등 격한 운동을 즐길 정도로 체력이 좋았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되었을 때도 큰 증상 없이 이틀 만에 회복할 정도였다. 그런데 4월 23일 토요일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과 미열이었다.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질 기미가 없었다. 4월 25일 월요일, 날이 밝자마자 동네 병원을 찾았다.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소염제와 해열제만 처방받았다. 약을 먹고 열이 조금 떨어지다가 싶더니 다시 올랐다. 다음날 동네 다른 병원을 찾았다.

“화요일에 방문했던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외적으로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웃으며 장난도 치고, 특이

한 경험이라며 사진도 찍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가 온몸이 아프다며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김일출 순장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런데 하필 그 병원이 방역을 하는 중이라 지호를 받아줄 수 없었다.

“온몸이 아프다며 잠 한숨 못 자는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 방역을 하고 있어서 입원할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바로 119에 전화해서 가까운 응급실을 안내받아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4월 27일 새벽 지호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몸 안에 염증이 가득했다. 0.5 이하가 정상인 염증 수치가 30배 훌쩍 넘는 17까지 올라있었다. 300 이하가 정상인 심장 효소 수치는 8,000 가까이 올라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60 이상이어야 정상인 심장 수축력이 47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열은 39.5도까지 올랐다.

날이 밝자마자 소아과 전문의가 지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지호는 ‘소아다기관 염증증후군(MIS-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판정을 받았다. 소아다기관 염증증후군은 주로 생후 3개월에서 20세 환자에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2~4주 이후 발열, 발진, 다발성 장기기능 손상 등의 증상이 생긴다.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지호가 발병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환자가 20명밖에 나오지 않은 희소질환이다. 지호의 염증 수치는 그중에

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

“주치의가 지호의 상태를 설명해주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증상이 순식간에 안 좋아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제가 섬기는 영아부와 일산공동체에 긴급 기도요청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을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일까? 주치의가 지호와 같은 질환을 치료한 경험이 있었다. 그 덕분에 지호의 증상을 빠르게 알아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응급실을 돌고 돌아 치료 경험이 있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힘, 중보기도가 만든 기적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고백을 당시에 할 수 없었다. 계속 안 좋아지는 지호의 상태를 보면서 괴롭기만 했기 때문이다. 4월 28일 목요일, 의료진의 예상대로 지호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 심장의 능력이 더 떨어지면 심정지 등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에 에크모(ECMO, 환자의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낸 뒤 산소를 공급해 다시 몸속에 투입하는 의료장비)를 달아야 한다고 했다. 에크모는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생존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에크모를 다는 것 말고는 다른 치료법이 없었다. 그만큼 지호의 상태가 심각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보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그 간절한 기도에 공동체도 함께 했다.

“공동체에 기도제목을 공유했더니 영아부 공동체에서는 온라인(Zoom)으로 함께 모여 울면서 간절히 기도해주셨습니다. 함께 울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저도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면서 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의료진의 예상과는 달리 지호의 심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았다. 4월 29일 금요일 오후까지 지호의 심장이 버티면 월요일에 에크모를 달기로 치료 방향을 바꿨다. 그런데 문제는 소아다기관 염증증후군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물이 지호에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사용하는 희귀약을 써보기로 했다.

보통 일주일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라 지호의 심장이 일주일을 버텨줘야 했다. 공동체에 다시 한번 기도제목을 공유했다. 그때부터 지호를 위한 기도의 불씨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영아부공동체, 일산공동체, 차세대를 넘어 기도제목이 공유된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에서 지호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등 해외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기도제목을 공유하자마자 정말 감사하게 이곳저곳에서 기도해주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지호의 기도제목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많은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기도를 모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밤새 모인 기도 덕분에였을까? 4월 30일 토요일부터 지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 1일 주일예배에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지호를 위해 기도했다. 그날 오후부터 기적처럼 지호의 염증 수치가 뚝뚝 떨어졌다. 일주일 뒤에나 효과가 나타난다던 약의 반응이 바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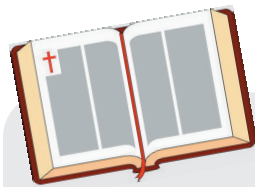
“주일예배에서 지호의 소식이 전해지고 많은 분이 기도해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기도의 배를 타고 칠흘 같았던 시련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기도가 만든 기적이 계속 이어졌다. 월요일 아침부터 지호의 염증 수치가 정상 궤도를 찾아갔다. 퇴원할 즈음에는 염증 수치가 1.6, 심장 효소 수치는 795까지 내리고, 심장 수축력이 67까지 올라 정상에 되었다. 빠르게 회복되는 지호를 보면서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였다. 김일출 순장은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이자, 중보기도가 만든 기적이라고 고백했다.

“의료진들은 의학의 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신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든 기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기도에 빛진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김지호 학생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빠에게 고비마다 전해진 기도의 선물에 대해 들었습니다. 보내주신 기도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로마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책입니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에는 언제나 로마서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의 회심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출발도 로마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부흥도 로마서 말씀을 깨달은 이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을 가장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음’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기쁜 소식들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꿈꾸던 것을 이뤘을 때, 원하는 학교, 직장, 일이 이뤄졌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등 누군가에게 알릴 수밖에 없고, 알리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온 소식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인가? 슬프고 우울한 세상 속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해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 장 칼뱅은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이 감추어진 모든 보화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의 영향력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주후 55~58년 사이에 쓰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뵤뵤’라는 집사를 보내 로마서를 전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교회를 펴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중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마음, 선교사의 마음, 사도행전의 영성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야 한다. 가장 선교적인 책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대개 방문했던 지역, 개척했던 교회들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처방전과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서신마다 고유의 주제가 있고, 특별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 보지 않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

고,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복음의 진리를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습니 다. 로마 가톨릭을 베드로가 개척했다고 하는데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들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함께 체험했던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있었을 거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에서 소수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때 변화된 이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소수의 몇 사람이 있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성령강림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계획을 세워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면 오순절 사건의 영향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고, 각자 살던 곳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당시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도시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장차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여러 측면에서 헌금이나 사역에 도움받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가 선교적 기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견고한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사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 다”(롬 1:1).

바울이 두 가지 호칭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또 하나는 사도입니다. 종이란 자신의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종입니다. 사도란 엄청난 권위와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대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1~7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변화시킵니다.”

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받아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울이 사도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지극히 높은 분의 명령을 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복음의 대략적인 윤곽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선포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라고 시작하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일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

둘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2~4절).

복음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개념이나 교훈이나 철학이 아니라 살아 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장 칼뱅은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과거 역사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면서도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리 약속된 하나님 아들에 관한 소식

셋째, ‘복음은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 미리 약속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오래된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신약에서 나온 새로운 소식만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역사 속에 오랫동안 주어진 약속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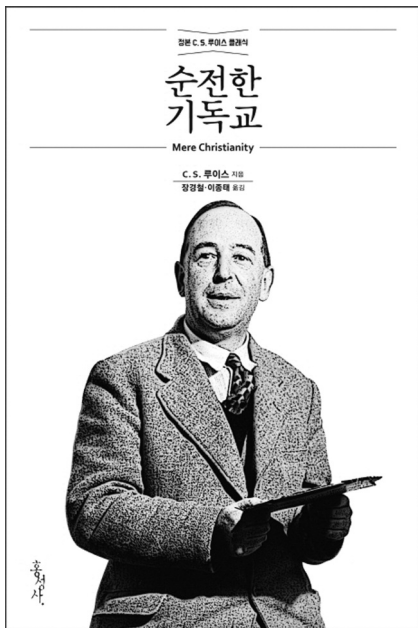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눅 24:44).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토라(율법서), 느비임(예언서), 크투빔(성문서) 이 세 가지 영역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미리 주셨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진리를 한꺼번에 전하면 소화가 되지 않기에 시대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 주시고, 뒤에 주어진 약속은 앞에 주어진 약속과 연결되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3면에 계속>

특별기고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 본 차별금지법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문학비평가인 C. 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의 1부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BBC 라디오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이러한 내용이 아주 진지하게 방송되었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책은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살아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그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위기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다’는 도덕의 붕괴였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위기보다 두려운 위기는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서 그는 이러한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 그것이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 사사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구약의 사사 시대였고,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무너지는 그 시대의 문제였고, 또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

루이스가 말하는 핵심은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자연법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과학 법칙과는 다른 자연 법으로, 도덕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도덕률이라는 말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옳고 그름이 우리와 우주에 대하여 명확하게 생각하는 토대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도덕 법칙은 집단 본능일까요? 루이스는 이것이 본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덕률이 우리가 연주해야 할 곡이라면, 본능은 그 악보를 연주하는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키를 눌러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도덕 법칙이라면, 그 키와 같은 것은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의 법칙은 인간 안에 있는 여러 본능을 조화롭게 해서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그 자체로 집단 본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본성의 법칙은 교육을 통해 주입된 사회적 관습일까요? 루이스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대, 어떤 나라들

의 도덕관을 비교해보면 공통하는 동일한 법칙이 있으며, 실상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어떤 도덕이 더 우수하고 열등한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본성의 법칙은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교육으로 주입할 수 있는 관습도 아니며, 우리가 만들어 내지 않았으면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실재하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루이스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유물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유물론적 관점은 “이 물질과 공간의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므로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고 또 알 수도 없다, 많은 우연을 통해서 몇몇 물질들이 인간으로 진화하고 발전한 것뿐”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종교적 관점’입니다. “우주의 배후에는 정신과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지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선호하는 존재로, 우리가 때로는 모르는 목적을 위해, 때로는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려는 목적을 위해서 우주를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종교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과학으로는 이 두 관점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진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과학으로는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서

과학적 관찰이나 실험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대상이 전 우주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법칙 아래 존재”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인간 본성의 법칙 아래 존재합니다. 이 법칙은 우리를 제어하는 법칙이며, 억누르는 법칙이고,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법칙은 잘 따르는 이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기고 있는 법칙,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와 또 그 무엇인가의 법칙입니다.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법칙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배후에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도덕률, 인간 본성의 법칙을 어기는 행동을 만일 그 만드신 분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절대 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순, 죄악, 이 법칙에 어긋나는 우리의 모든 것은 대부분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원형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루이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시지만 보이는 모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법칙 아래 우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 어떤 분은 성경에 진노하는 하나님이 라는 표현을 두고, “어떻게 선한 분이 진노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선한 분이



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심판하시기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하신 것입니다. 만일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원수가 되는 상황이므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우주를 다스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순전한 기독교> 1장의 논리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 본성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위안이 되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최고의 공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제3의 성 혹은 사회적 성이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인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 저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루이스가 말한 ‘인간 본성의 법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차별 때문에 불안하다.”, “내 안에 있는 동성애의 성향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이라고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오해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오히려 더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지지해줘도 불안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모든 우주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라는 그 루이스의 말이 사실이며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도덕률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루이스의 관점으로 볼 때 도덕률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형법으로 강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모순입니다.

몇 개월 전 한 지상파 방송에서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저녁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한 학생이 커밍아웃을 한 이후 친구들이 왕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책상이 무너져 있고 또 친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을 따돌린다는

회,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법을 최대화한다고 도덕률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이 감당해야 할 것을 법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 내재된 인간 본성의 법칙은 법전이 없어도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법칙을 지키면 그 자체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큰 불안을 줍니다. 어떠한 성향과 충동을 통해 그러한 자극이 요구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꿰고 본성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도덕이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 본성의 법칙, 이 도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차별과

“법을 제정하는 노력을 도덕률을 함양하고,
올바른 창조질서를 가르치는 데로 돌리기 원합니다.
인간은 인간 본성의 법칙을 따를 때만,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킬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법입니다.”

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분이 가장 선하신 분이기에, 절대 선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 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자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원수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존재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기 전까지 기독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가난한 자의 복을 설명하십니다. 가난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이 절대적인 선의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 도덕 법칙을 부여하신 그분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절대적인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순을 가지고는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절대 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옳고 그름이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루이스는 “옳고 그름이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인간 본성의 법칙 아래 살고 있고, 인간이 싸우고 불안하고 갈등을 빚는 원인은 인간 본성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만 그런 건 아닙니다. 왜곡된 모든 성적 탐욕이나 또 잘못된 거짓, 음란, 모든 종류의 죄악들, 교만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선에서 벗어난, 인간 본성의 법칙에 벗어난 모든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차별 때문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제3의 성이라는 주장은 심지어 자연과학 법칙에도 위배됩니다. 의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염색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성향과 실제 염색체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에서 이것은 그른 것입니다.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서 옳음을 택하면 평안이 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평안이 옵니다. 그름을 택하면 우리 마음속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호소를 전한 뒤 그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학생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름 갖고도 친구를 따돌릴 수 있고 부모의 직업, 얼굴 생김새 온갖 이유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를 따돌리는 그런 나입니다. 커밍아웃한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맞는 일일까요? 어떠한 이유로든 친구를 왕따 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인간 본성의 법칙,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률을 교육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줘야 할 일을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시도조차 불필요한 법이다

법의 정신은 도덕의 최대화입니다. 왜 법을 만들니까? 도덕적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 지배하는 사

불안을 없애는 최선의 행복한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불필요한 법을, 오히려 부작용이 심한 법을 만들어서 도리어 도덕률을 무너뜨리는 법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노력을 도덕률을 함양하고, 올바른 창조질서를 가르치는 데로 돌리기 원합니다. 인간은 인간 본성의 법칙을 따를 때만,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킬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종류의 법이 통과된 유럽과 북미 또 일부 나라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본다면 결코 행복한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라가 됨으로써, 종말을 향하여 나아갈 때 구원받는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자화상】

증권계 ‘미운 오리 새끼’ 신재영 총무의 꿈

바른 금융, 습관 투자, 쉬운 펀드(금융)

“고객보다 실적이 우선.”

근 몇 년간 터진 부실 펀드 사태 등 금융권을 꼬집는 말이다. 실제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직원들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나 인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객을 뒷전으로 미뤄놓는 일이 허다하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등 잇힐 만하면 펀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35년차 금융맨 신재영 총무(양천공동체, 현 에셋플러스 감사, 전 포스증권 대표)다. 그는 증권계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통한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세상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 선택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말이다. 신재영 총무는 ‘바른 금융’, ‘습관 투자’, ‘쉬운 펀드(금융)’가 증권계를 넘어 대한민국에 보편화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오늘도 그 꿈을 위해 예수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2명이 금융 문맹이라고 한다. 금융 문맹은 기초적인 금융 지식이 전무하다는 의미다. 월급만 잘 받아서 저축하고, 기회 되면 자가를 마련하는 게 미래설계의 전부였던 중장년들에게는 별다른 금융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닳컴버블, IMF 등으로 난다긴다하던 투자자들이 강통을 차는 모습을 보기에 금융이 금단의 영역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35년 차 바른 금융인 신재영 총무

그런데 금융시장의 야수들은 늘 ‘금융 문맹’을 노리고 있다. 금융 문맹들이 여러모로 이용하기 좋기 때문이다. 금융을 언제까지 금단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도 없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모든 국민이 금융자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청년들은 비트코인에 목을 매고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대를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생겨났다. 그것이 ‘동학개미운동’이다. 동학개미운동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한 증권사 조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위 100개 주식 중에서 89개가 손해를 보고 있다. 최근 증권시장이 하락세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개인투자자들의 성적표가 좋지 않다. 개인투자가 어려우니까 찾는 것이 펀드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 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한 다음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 투자상품이다. 신재영 총무의 직업은 펀드 전문가다. 높은 실적, 수수료, 판매액을 쫓는 증권계에서 ‘바른 금융’, ‘습관 투자’, ‘쉬운 펀드’를 외치는 미운 오리 새끼다. 사실 지금이야 증권계 미운 오리 새끼로 통하지만, 과거에는 증권사 실적 상승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증권맨이었다. 신재영 총무는 1988년 대우증권에 입사해서 남부럽지 않은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갔다.

“꽤 오랫동안 증권계에 몸담고 있습니다. 1988년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증권계는 세상의 한 가운데 같습니다. 돈을 쫓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금세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회사의 이익을 쫓는 금융인 중 하나였습니다. 실적이

“바른 금융은 성경적인

금융관과 재정관을

기초로 하는 투자를 뜻합니다.

성경적인 금융관과 재정관은

청지기적 신앙이 기본입니다.”



좋았으니까 지금껏 증권계에 몸담을 수 있었겠지요?(웃음).”

수익보다는 고객!

신재영 총무는 2004년 무렵 업계 4~5위를 맴돌던 대우증권을 업계 1위로 끌어올린 실력자다. 신재영 총무의 행보가 늘 증권계에 화제를 모았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 마는 동 했던 그에게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 박일환 장로, 박해경 권사 부부가 양천공동체 맞춤형교회에 신재영 총무 부부를 초청했다. 신재영 총무는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신앙생활인 만큼 시간을 아껴가며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다. 신재영 총무의 삶과 신앙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증권계에 종사하는 성도들과 만남이었다.

“증권계에 근무하는 성도님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증권계에는 좀처럼 신우회가 없는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크리스천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즈음 직장생활을 그만두어야겠다 싶어서 퇴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꿈을 펼칠 기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펀드온라인코리아(현 포스증권)라는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신재영 총무는 펀드온라인코리아를 섬기며 직원들에

게 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신재영 총무의 직업 좌우명은 ‘바른 금융’, ‘습관 투자’, ‘쉬운 펀드(금융)’다. 바른 금융은 성경적 금융관과 재정관을 뜻한다.

“바른 금융은 성경적인 금융관과 재정관을 기초로 하는 투자를 뜻합니다. 성경적인 금융관과 재정관은 청지기적 신앙이 기본입니다. 청지기적 신앙과 자세는 투자자들의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모든 금융기관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소양입니다. 청지기 같은 마음이 없으면 오직 실적만 쫓는 문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도 마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업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어떻게 소비할지 기도하고 계획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습관 투자는 한탕주의 대신 습관처럼 긴 호흡으로 투자하자는 개념이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사는 게 힘들어서 공격적이고 투기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한탕이 아니라 내 아들, 손자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매일 만 원씩 하는 습관 투자를 추천합니다.”

쉬운 펀드(금융)는 누구나 금융을 알기 쉽고 쉽게 접근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금융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쉽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편하게 다가오고 이해

하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고객들과 증권업계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서로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재영 총무의 좌우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 펀드온라인코리아 최대주주가 바뀔 당시 신재영 총무와 최대주주 후보인 A 회사와 마찰이 있었다. 깔끔하게 부사장직을 내려놓았는데 A 회사가 금융위원회 대주주적 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신재영 총무는 새로운 대주주가 된 B 회사에서 사장을 제안을 받았다.

“B 회사에서 저의 소신을 좋게 봐 주시고 사장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포스증권(전 펀드온라인코리아) 사장으로 섬기다 퇴사했습니다.”

바른 금융 세력이 많아지는 꿈

금융계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집단을 ‘세력’이라고 한다. 그 세력들이 금융시장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고, 주가를 조작해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신재영 총무는 바른 금융 세력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포스증권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바른 금융, 습관 투자, 쉬운 펀드(금융)를 외쳤습니다. 회사와 직원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바른 금융, 습관 투자, 쉬운 펀드(금융)가 업계와 회사가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잘 따라 왔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저와 같은 꿈을 꾸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른 금융, 가치 투자, 청지기적 투자 등 각자의 생각과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도 방향은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풍성하게 하는 금융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의 소명을 펼쳐갈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수수료보다 고객을 우선하는 신재영 총무를 증권계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누구보다 화사한 백조다. 신재영 총무가 세상에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자화상이다. 신재영 총무가 성경적 금융관과 재정관으로 증권계를 선도하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진정 아름다운 크리스천 투자법

공포와 탐욕을 이기는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 강사)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급등과 확전 우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중국의 ‘제로 코로나’를 위한 도시 봉쇄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의 영

향으로 전 세계 증시가 연초 이후 계속 하락 및 조정받고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기에 크리스천들은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까? 이 지면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방법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각종 주가지수 그리고
공포와 탐욕지수

누구나 한 번쯤 ‘코스피, 코스닥, 다우, 나스닥, S&P500’과 같은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것들을 모두 ‘주가지수’라고 한다.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지수는 미국증시를 대표하는 3대 주가지수다. S&P500 지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S&P)’가 작성한 주가지수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00개 대형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포함해 미국 주식시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지수다.

다우지수는 미국의 다우존스사가 가장 신용 있고 안정된 주식 30개를 표본으로 시장 가격을 평균 산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를 말한다. 나스닥(NASDAQ)은 첨단 벤처기업이 상장된 미국의 장외 주식시장을 말한다. 코스피(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는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종합주가지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다. 코스닥(KOSDAQ)은 미국 나스닥을 차용해 만들어진 주식시장으로 주로 코스피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IT, 벤처기업 중심 시장이다.

이러한 다양한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의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이자,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상품은 수익률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처음 코스피 시장이 열린 1980년 1월 4일 당시 시가총액을 기준지수 100으로 놓고 그보다 시가총액이 커지냐 작아지냐를 통해 경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1980년 100이었던 지



눈앞에 보이는 수익과 손실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소중한 보금자리와 노후를 위해, 하늘나라 창고에

저축하고 투자하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크리스천 투자법’이다.

수가 현재 2600선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980년 당시 1억 원을 ETF와 같은 지수연계상품에 투자했다면 현재 그 돈이 지수가 26배 상승함으로 인해 26억 원이라는 큰돈이 되어 있을 거라는 말이다.

위에서 나열한 여러 지수 외에 ‘공포와 탐욕지수(Fear & Greed Index)’가 있다. 공포와 탐욕지수는 CNN Money에서 만들고 사용하는 지수인데, 투자 심리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7개 지표를 종합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탐욕으로 가득 찼는지, 공포로 가득 찼는지를 상대 강도로 나타내는 지표다. 0부터 100까지 있는데 0은 극단적 공포를, 100은 극단적 낙관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투자전략은 공포와 탐욕지수가 20 미만일 때 사는 것이고, 80 이상일 때 파는 것이다.

투자 격언 중에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는 말이 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있을 때 싸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고, 모두 탐욕에 취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가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시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다. 인간은 심리적, 사회적 동물인지라 오히려 반대로 행동한다.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기 십상이다.

공정과 신념의 힘과
탐욕에 의한 불안증후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귀도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들과 아내와 함께 수용소로 불잡혀간다. 귀도는 아들 조슈아에게 비판적인 상황을 수용소에 계입하러 왔고, 이 계입에서 이기면 조슈아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탱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안심시킨다. 귀도는 독일 군에게 끌려가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억살스러운 표정으로 걸어가며 아들을 향해 웃는 모습을 보인다. 참으로 긍정적인 귀도의 모습대로 전쟁이 끝나고, 조슈아는 연합 탱크에 탑승하는 선물을 받는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과 더불어 어쩔 저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에 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놀람과 의문이 들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으로서 수용소 생활을 직접 체험한 베티 프랭클(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저서를 통해 당시 극한적인 공포에 떨고 있는 유대인 중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건강해 보이기 위해서 깨진 유리로 면도하고, 전쟁이 끝난 이후 따뜻한 벽난로에 앉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티타임을 가지는 모습을 상상한 사람들이 생존확률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전쟁의 명분을 찾지 못하는 러시아 군인들보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공정과 신념의 힘이라는 과정에서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공포지수가 최고치에 도달해있는 것 같다. 손절(손해를 보고 파는 것)을 해서라도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화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에는 어땠는가?

그때는 ‘빚투족’, ‘영끌족’들이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에 가족, 친척들 돈까지 모두 끌어모아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지 않았던가? 당시 상승밸리에서 나 혼자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FOMO(fear of missing out)라는 또 다른 형태의 공포증후군이 나타났다.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공포의 이름을 빌린 탐욕에 의한 불안증후군이었던 셈이다.

공포지수, 탐욕지수, 평안지수

지금 당신은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 큰 손실을 볼지도 모른다는 공포지수가 높은 상태인가? 아니면 포모증후군에 휩싸여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묻지마 투자’를 하는 탐욕지수가 높은 상태인가?

공포와 탐욕을 이기는 힘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우량한 자산을 저렴할 때 꾸준히 사 모으는 것에 있다. 물론 아무리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한 자산에 몰빵(잘 나가는 종목 하나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겠다.

디즈니 만화영화 ‘쿵푸팬더’를 보면 시푸 사부가 늘 들떠있고 천방지축 주인공 포에게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Inner Peace”라고 권면한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과 손실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노후를 위해, 더 나아가 하늘나라 창고에 저축하고 투자하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느긋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크리스천 투자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잠 4:2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엡 5:3).

“라떼는 말이야”

더 어릴수록, 더 자주, 더 쉽게

“새내기 부모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맘카페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보면 벌써 저런 것을 해야 하나 걱정되다가도 안 하면 내 아이가 뒤쳐질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는 크리스천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주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삶 속에서 말씀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어린 나이일수록 올바른 자녀 양육의 방향이 서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크리스천은 모든 삶의 해답을 성경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해답도 먼저 성경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릴 때 모습을 찾아보면 어

린 나이임에도 율법학자들과 성전에서 말씀을 나눌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정받았다고 되어 있다. 예수님도 말씀을 매우 어린 시기부터 익혔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에 일반 사람과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크리스천 부모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맘카페와 같은 모임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어서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기능적인 면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크리스천 부모는 자녀들이 어린 시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어렵지 않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성경

내용을 이야기 풀어가듯 자녀에게 들려주거나 부모님이 매일 큐티하고 묵상한 말씀을 쉽게 설명해주면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습득하게 된다. 어린 자녀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부모가 전하는 이야기를 흡수한다. 오히려 다른 습관이나 의식 구조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다. 그때 교회학교에서 우화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말씀해 주신 선생님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보다 센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명확하게 새겨졌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에게 생명과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최대한 쉽고 가깝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자녀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의 양육 위에 다양한 교육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께서 부어주시는 말씀과 능력이 자녀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주리라 믿는다.

내 아들은 현재 대학생이다.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외국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양육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매우 후회된다. 지금은 아들과 큐티 묵상을 서로 나누면서 깊은 교제를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 다른 교육만큼이나 말씀 양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썼다면, 아들이 이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하고 온전한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성장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른 나이에 경험하지 못하게 한 것이 부모로서 아쉽고 미안할 뿐이다. 더 어릴수록, 더 자주,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



김성훈 멘토
(허브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는 과정보다 공유하는 관계

아내가 어느 날 하얀색 손목시계를 샀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 가지 시계를 비교해 가면서 오랜 고심 끝에 산 저렴한하면서도 디자인이 괜찮은 손목시계였다. 한동안 그 시계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손목에도 차보고 장롱에 있는 옷들과 조화가 잘 맞는지 비교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나에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라고 물었다. 질문을 받고 본의 아니게 “그래 잘 맞네!”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아내는 좀 더 성의 있게 대답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같은 질문을 며칠 전부터 반복해서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처음 물어봤을 때는 나름 성심껏 대답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면서 대답이 짧아졌고 형식적으로 되었다. 아내가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 시계가 자신에게 맞는지 다시 한번 봐 달라고 했다. “어! 잘 맞네!”라고 또 한 번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런데 아내가 색깔이 자신에게 맞는 지, 평소 차고 다녔던 예전 시계와 비교해서 어떤지, 모임에 참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답해준다면 좋겠다고 했다. 슬슬 아내가 한계에 도달해서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필요가 있으니 마음을 다해서 대답해주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하얀색 시계가 당신에게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아내는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반전이 발생한다. 아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근데 나한테는 하얀색 시계보다 지난번 빨

간색 시계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난 그 시계를 차기로 결정했어!”

그 순간 허망한 마음이 잠시 들었다. ‘그럼 지금까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물어봤을까?’, ‘남편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같은 질문을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된 하얀 시계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그래도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빨간색 시계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종류의 크고 작은 의사소통과 결정의 경험과 과정들을 겪어왔던 터라 너무 짜증을 내지는 않았다. 만일 경험이 부족했다면 몹시 화가 났고, 짜증을 냈을 것이다. 성심껏 제시했던 나의 제안과 마음이 거부당한 것 같은 거부감도 들었을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쩌면 작은 일이고, 서로의 성향이 다름에서 오는 작은 예외 소드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작은 일이 자칫 큰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다. 다행히 아내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해줄 수 있는 마음의 내공을 쌓을 수 있어서 더 큰 불화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아내가 시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나누었던 대화와 조율의 과정은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부부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공유하는 관계다. 결과 혹은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결과를 도출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두 사람이 함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존중을 유지하면서 과정을

밟아 왔는지가 중요하다. 결정과 목표를 이루기까지 부부는 서로 많은 대화를 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경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소소하게 대화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주면서 부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작은 친밀감을 쌓아가는 기회가 된다. 배우자의 반복된 물음에는 기다려주는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합당한 대답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일 수 있다. 반복된 질문과 반복된 대답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인정과 지지를 받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남편은 매일 “날 사랑해?”라는 반복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자주 “나 잘했어?”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자주 반복되는 질문에 배우자가 빈정거림, 무관심한 태도, 무뚝뚝한 말투로 반응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떤 시계가 잘 어울리는지 한동안 같은 질문을 아내가 나에게 했고, 그때마다 나는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게 나름대로 대답을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마음속으로는 “그만 좀 물어봐요”, “이번이 마지막 대답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었다. 결국 아내가 외출하면서 택했던 시계는 다

른 시계였지만, 결코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적으로 잘 알고 있다. 아내의 선택을 수용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배우자의 선택에 대해서 “그래 잘했네”, “잘 선택했네”라는 반응을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 계속 물어보더니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네.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봤어?”라는 식의 비난 섞인 대답은 부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화에도 성실히 임하고, 나의 기대와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인정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부의 대화에는 사소한 내용으로 치부할 것이 없다. 모든 대화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다. 부부의 대화는 결과와 함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의 대화가 되어야 한다. 딱 잘라서 말하거나 결론을 미리 던져 버리는 유형의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부는 소소한 대화라고 하더라도 주고받는 청자와 화자의 역할을 충실하면서 상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전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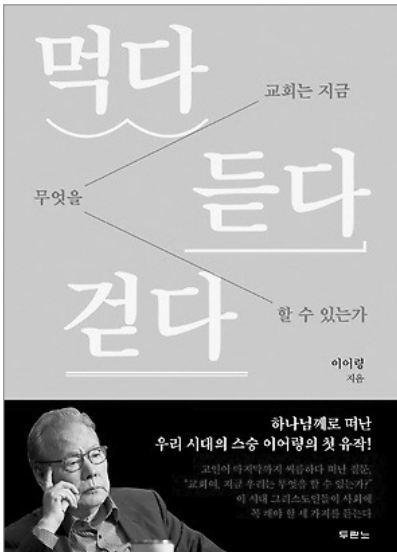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회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먹다 듣다 걷다〉
이여령 저 | 두란노 | 12,000원

한국 사람에게 중요한 공동체 문화 중에 “다음에 밥 한번 먹자”는 인사가 있다. 실제로 밥을 먹자는 의미보다 다음을 기억하는 특별함이 담겨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면 음식보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교제가 이루어진다. 한국 문화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이하게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한국 사

람이기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산다.

먹고 듣고 걷는 사소한 일상의 행위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살아계심을 본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심을 믿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삶으로 살아내셨다. 그리고 그 바통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된 선물이다. 그리스도인이자 교회인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지향점이다.

우리 시대의 스승 이여령의 유작 〈먹다 듣다 걷다〉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이날에 받을 선물을 기다리듯이 간절히 기다려왔던 책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쉬운 글로 깊이 있고, 영육 간에 큰 울림을 준다.

교회는 복음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회를 이룬 개개인이 한 사람의 정체성에 갇혀 어떻게 ‘전하며’ 살아낼지에 대한 기도보다 어떻게 ‘먹고’ 살지를 많이 고민했다. 각자 처한 상황이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충격 그 자체이고, 은혜보다 걱정과 근심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소하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믿고 살아내야 할 예수님의 생애도 상당히 역동적이고 생생했다고 표현한다. 그것이 살아있음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삶으로 살아내셨다. 그리고 그 바통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낼 기회를 주셨다. 이제 우리가 하면 된다.

저자는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게 있었는가?’라고 묻는 반어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아니다. 분명하게 살아 숨 쉬는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조명한다. 그것을 먹고, 듣고, 걸으면 된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무엇을 먹고 듣고 걸어야 하는지를 이 책을 읽으면서 확인하기를 소망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교회가 먹고 듣고 걸어야 할 길을 보여 주실 것이다.



윤준석 목사
(수원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말씀을 쾌청하면 삶이 쾌청해지리라!



〈쾌청 신약〉
박영호 저 | 두란노 | 13,000원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중략) 이를 것이요’ (행 3:19, 개역한글)라고 했다. 말씀을 쾌청(快聽)하면 삶이 쾌청(快晴)해지리라는 약속으로 읽는다.”

책 서문에 쓰인 저자의 말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배운다. 말씀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변화시키신다. 성경 읽는 즐거움을 맛보고 싶은 성도 삶의 기쁨을 되찾고 싶은 성도에게 이 책 〈쾌청 신약〉을 추천한다.

즐거운 성경 여행을 할 수 있다. 〈쾌청 신약〉을 읽으면서 말이다. 책 〈쾌청 신약〉은 박영호 목사(포항제일교회 담임)가 성도들이 신약 세계를 즐겁게 여행하도록 쓴 신약 안내서다. 말씀을 즐거이 듣고 깨달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 제목에 쓰인 ‘쾌청(快聽)’이라는 말은 “듣기는 속히 하라”는 야고보서 말씀에서 나왔다(약 1:19). ‘속히 한다’는 말은 기쁘게,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다는 의미다. 성도들이 말씀을 기쁘고, 즐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기 원하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성도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옮겼다. 그래서 성도들의 현실에 맞는 적용점이 다양하다. 어려운 말씀강해가 아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삶으로 적용까지 이끌어 간다. 이 책 하나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쾌청’이라는 말을 곱씹어 보면, ‘유쾌’, ‘상쾌’, ‘통쾌’라는 말이 연이어 떠오른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기독교 OTT ‘풍당’ 가정예배 콘텐츠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전략



갯툰 악마수업

편당 10분 이내다. 가정예배나 교회학교에서 활용하면 좋다. 부모나 교사들이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미리 읽어두면 더욱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다.

성경 속 이야기를 재미난 만화로 소개하는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갯툰’에서 〈악마수업편〉을 제작했다. 갯툰 〈악마수업편〉은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모티브로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악마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보여주는 만화다. ‘쥔 회의 빌런’, ‘유혹’, ‘농사’, ‘배신’, ‘멸망의 시간’, ‘혹화’, ‘마음의 문’을 주제로 영상, 몰아보기, 쿠키 영상 등 총 8편을 제작했다. 러닝타임은

나도 말씀 퀴즈 왕!



바이블킹 & 톨레레게

〈바이블킹〉은 기독교 OTT 콘텐츠 〈톨레레게〉에 나오는 말씀과 해설을 겨루는 말씀암송대회다. 자녀들과 함께 〈바이블킹〉과 〈톨레레게〉를 시청하면서 말씀 삼매경에 빠져보자.

482개 교회 1,000명의 성도가 참여한 말씀암송대회 〈바이블킹〉이 매주 1회씩 공개되고 있다. 〈바이블킹〉은 암송실력을 뽐내고 퀴즈를 통과하는 재미도 선보이지만,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주는 은혜도 나누고 있다. 〈바이블킹〉 2회에서는 “육아로 지친 삶이 말씀으로 위로 받았다”는 참가자, “출산 우울증을 바이블킹을 준비하면서 회복했다”는 참가자의 간증이 있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 마지막 발걸음!

6월 5일까지 생명나눔의 기적, 5월 22일까지 헌혈증 기증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6월 5일 성령강림주일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대한민국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캠페인이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찾으

면 된다. 헌혈카페에서 헌혈하고 헌혈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구매하면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모금한 헌혈증과 수술비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 가정에 전달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

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에 게재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사역본부에서 헌혈증 기증을 받는다. 헌혈증은 수술이 필요한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헌혈증 기증을 원하는 성도들은 5월 22일(주일)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선교의 영성을 회복하라!”

5월 24~26일 대전온누리교회 '말씀사경회'

대전온누리교회가 5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오후 7시 30분 본당과 세종교육관 본당에서 '선교의 영성'을 주제로 말씀사경회를 개최한다. 대전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말씀사경회 '선교의 영성'에서는 도육한 목사(양지온누리교회 담당)가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다.

대전온누리교회는 선교 영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한 '달려라 풍당' 참가, 7~8월 국내외 아웃리치,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의 선교 강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입양'

사회선교부 제이흙, 선한울타리 입양위탁행사

지난 5월 14~15일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에서 사회선교부 제이흙(입양위탁 커뮤니티)과 선한울타리(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가 주최하는 '입양위탁행사'가 열렸다.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주일예배에서는 제이흙 가족들의 입양 간증이 이어졌다.

세 아이를 입양한 오윤식 집사는 "매일 자녀들과 지지고 볶고 사는 일상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가족을 이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인 입양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쌍둥이 아들을 입양한 이명열 성도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정작 아이들이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줬다"면서 "제이흙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정인 입양에 대해 알아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성령수련회 참가자 모집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와 속성, 사역, 권능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성령수련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오전 7시 4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신동아쇼핑센터 앞에서 Acts29비전빌리지로 가는 버스가 출발한다. 참가 신청은 6월 1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7120-5221

'위대한 상담자, 예수'

진정한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는 방법을 배우는 온라인 세미나 '위대한 상담자, 예수'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한성열 교수(고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국적 상황에서의 상담', '예수님의 상담법'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회비는 2만 원이다. 강의는 회비 결제 이후 30일 동안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수강하면 된다.

문의: 02-2078-3456

동작공동체 아프간, 미얀마 난민지원

김포M센터에 가전제품 50점, 의류 100여 점 전달

동작공동체가 아프간 난민과 미얀마 난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지난 5월 14일 동작공동체는 김포M센터에 아프간 난민들과 미얀마 난민들이 사용할 가전제품 50점(핸드폰 16대, 선풍기류 30대, 진공청소기류 4대)과 의류 31개 품목 100여 점을 전달했다. 김포M

센터 주방 봉사를 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방에 예배당과 연결된 스피커도 설치했다.

이종택 다락방장(동작공동체)은 "가전제품과 의류를 헌물해주시는 동작공동체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남수단 케세리2마을 장로교회 재건

NGO 더멋진세상, 인카이네션문화예술재단, 주민 협력

NGO 더멋진세상이 폭우로 무너진 남수단 케세리2마을 장로교회를 재건했다. 남수단 케세리2마을 장로교회 재건은 '인카이네션문화예술재단' (대표 최인선)이 후원하고, 케세리2마을 장로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사됐다.

남수단 케세리2마을 장로교회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시작한 작은 교회다. 그런데 올해 초 폭우를 견디지 못해 교회를 철거했다.

지난 5월 13일 드린 남수단 케세리2마을 장로교회 헌당예배에는 마을 주민 1,000여 명과 남수단 교회 리더십들이 참석했다.

/ 김영선 기자

파워임팩트 참가자 모집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 (이하 파워임팩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모반 6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청소년반 6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청소년반 3만 원(형제, 자매 함께 신청하면 2인 5만 원), 부모반 3만 원(부부 함께 신청하면 2인 5만 원)이다.

문의: 010-4548-1522

'축구도 선교다'



양재 이천선교 스포츠선교팀 공사랑(팀장 장관수 집사)이 지난 5월 7일(토) 몽골 밝은미래학교에 축구공과 축구양말, 가드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반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밝은미래학교 이사장 최종순 집사, 송영동 목사, 이상진 목사,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회 온누리 합창 축제 참가팀 모집

6월 30일까지, 온누리교회 소속 아마추어 합창단 대상

오는 12월 3일 열리는 제1회 온누리 합창 축제 참가팀을 모집한다. 6월 30일까지 이종길 장로(010-6270-2327, 장로합창단 총무)에게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온누리교회 소속 합창단이거나 온누리교회 성도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합창단 이름, 합창단 소개, 지휘자 및 단

장 연락처 등을 적어서 보내면 된다.

제1회 온누리 합창 축제는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12월 3일 개최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에 소속된 아마추어 합창단(찬양사역팀 제외)이 연합해서 여는 찬양콘서트다.

문의: 010-6270-2327

알콩달콩 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부부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알콩달콩 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

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커피당 15만 원(목회자 50% 할인).

문의: 02-2182-9114

■ 제이흙(입양위탁 공동체) 간증



/ 김은영 성도(인천온누리교회)

결혼 전 시택에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님이 아기를 빨리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신혼 초부터 내 마음에 임신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빨리 아기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그런데 출산의 기쁨이 찾아오지 않았다. 힘든 기다림이 계속되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지치고 힘들어할 즈음 시부모님이 먼저 입양을 권유하셨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원하는 입양을 나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서운함이었다. ‘왜 출산이 먼저가 아니라 입양인가요?’ 라며 주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다. 두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로 입양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하면서 입양에 대한 마음을 정할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풍성하고 기쁨이 가득했다. 온갖 매체들을 통해 듣는 입양에 대한 걱정과 부정적인 이해로 인한 불안이 아이와 함께하면서 사라졌다. 아이는 정말 출산이든 입양이든 똑같은 내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돌봄 힘과 사랑을 주시고,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을 넣어두셨다고 느꼈다.

기고, 서고, 걷는 등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하나님은 입양을 기뻐하신다!

지켜보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다. 입양이 생명의 경이로움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요,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 기쁨은 아이가 10살이 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이가 다섯 살 즈음에 우리 부부는 아이와 입양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다. 지금은 언제나 건강한 입양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나를 입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입양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주님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라는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신다. 나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육 시설에는 약 13,000명의 아이가 지내고 있고, 2만 명의 청소년이 장기가출 상태라고 한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본 적이 없어서 가정이 뭔지 모르고, 장기가출 청소년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해서 가정을 소망하지 않는다고 한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생명의 말씀인 주님과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아이들에게 생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입양, 위탁, 보육원 아동 돌봄, 시설퇴소 청년 자립 지원 등의 사역에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가 함께했으면 좋겠다.

문의: 제이흙 02-3215-3434

■ 와이미션 수료 간증



/ 갈자영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선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와이미션은 늘 다음 기회로 미뤄두었던 강이었다. 주변에서 OBC 강의 중에서 와이미션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는 것을 느꼈다. 신앙을 회복하고자 와이미션 과정을 신청했다.

얼떨결에 시작했는데 역시 과제가 만만치 않았다. 특히 독후감이 무거운 숙제로 다가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달라졌다. 선교의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보이고 이해되기 시작했다. 온 세상에 복을 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으로부터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와닿았다.

사실 선교는 나와 먼일이라고 생각했다. 선교란 현재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해외에 나가서 모든 시간을 사역을 위해서만 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지금은 선교가 꼭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을 살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

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어쩌면 가장 시급한 선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주민들을 섬기는 안디옥열방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할 때 일이 생각났다. 그때는 예배 봉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곧 선교의 한걸음이었다.

독후감 과제를 위해 카메론 타운센드의 책을 읽으면서도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깊이 다가온 깨달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움직이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들을 움직이셔서 또는 나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선교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려 한다. 와이미션 강의를 들으면서 내게 주신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이주민 선교에 뛰어들고자 한다. 신원석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강사님과 와이미션 스태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새로운 생각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 NGO 더멋진세상이 간다



/ 정은희 선교사(NGO 더멋진세상 남수단 지부장)

남수단을 비추는 별이 되기를!

나무 아래서 시작한 남수단 케세리2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진흙을 이겨 만든 작은 예배당이었다. 그런데 케세리2 장로교회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이면 교회가 침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우기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가 완전히 침수됐다. 붕괴 위험이 있어서 교회를 철거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지난해 말부터 일하고 계셨다. 성도들이 땅을 고르고,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기로 완공이 조금 늦어졌지만 지난 5월 15일부터 주일예배를 드렸다.

NGO 더멋진세상이 남수단 케세리2마을을 입양해서 개발을 시작한 이후 성도들이 늘었다.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좁아서 성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교회 건축이 필요했다. 교회 건축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의 후원으로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빠르게 일을 하셨다. 교회 터가 작은 언덕 위에 있어서 기초 작업부터 예산이 초과됐다. 자재와 인건비도 많이 올라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지만

건축하는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건축을 할 수 있었다.

케세리2 장로교회는 케세리마을 주민들의 자금심을 높여줬다. 그동안 보건소와 6개의 우물, 고등학교 건축이 시작되는 등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서 케세리마을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덕분에 주민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있다. 교회만이 아니라 마을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케세리2교회 아와디아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를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면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고백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 5:14).

이 말씀처럼 작은 언덕 위에 지어진 케세리2 장로교회가 케세리마을을 비춰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복음의 진리로 마을의 어르신부터 어린이 모두가 케세리(별)의 그 이름처럼 남수단을 반짝반짝 비추는 별이 되기를 기도한다.

■ 파워임팩트 수료 소감



/ 이정묘 성도(청운교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족이 공동체로써 잘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나와 큰아들은 애착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큰아들은 본인이 힘들 때 친구들만 찾고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게임과 유튜브만 보는 모습을 보였다. 엄마인 나에게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보다 요구사항만 이야기했다.

파워임팩트 강의를 들으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내가 큰아들을 항상 못마땅해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회하는 마음과 새롭게 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동안 큰아들을 충분히 지지하거나 응원해 주지 못했다. 항상 지적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 했던 것 같다. 그래도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마음으로 노력하려고 한다. 어떤 상황에도 내 아들이 존재 자체로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뿌리깊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진로와 비전에 관한 강의도 좋았다. 이 강의에서 직업이 돈벌이 수단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소중한 통로임을

배웠다. 교사로서 우리 큰아들처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학생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돕겠다는 사명이 생겼다. 내 아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수업은 하나도 듣지 않고 온종일 게임만 하면서 집에만 있을 때 많이 고통스러웠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생길 텐데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애쓰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44년을 살면서 지난해처럼 다사다난했던 해가 없었던 것 같다. 절망하고 괴로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다. 항상 우울했던 주말 저녁에 은혜와 감사의 말씀으로 평안이 찾아오게 하셨다. 앞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를 위해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려 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 우리 가족이 다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한다. 자녀들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어떤 모습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권사칼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기를!



김은지 권사
(양재 대청어머니
기도회 팀장)

가정의 달 5월이라서 그런지 지난 2월 소천하신 진정아버님이 더욱 그리워진다. 내가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나 뛰어난 신학자가 아니다. 진정 아버지이다.

나의 진정아버님은 크지 않은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평생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다. 장례예배를 치르면서 우리 4남매는 각자 아버님의 삶에 대한 추억을 나눴다. 각자의 경험이 조금씩 달랐지만, 기도하며 삶으로 보여 주신 헌신적인 모습은 같았다. 아버님의 신실한 삶은 우리 4남매를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했다. 나에게도 딸이 있다. 나를 최선을 다해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버님을 기억하듯이 나도 딸에게 과연 그런 부모로 기억될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사연을 가지고 있다. 깨어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오시기도 하고, 대학 입학과 동시에 무신론자로 변해서 교회를 등지게 된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다가 오시기도 한다. 자녀의 진로와 취업, 결혼, 군대 문제 등 많은 개인적인 문제와 고민을 안고 오셔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어머니들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된다. 주님께서 부모인 우리를 먼저 화개하게 하신다. 그동안 교회에 한 발만 담그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던 모습을, 영적 무지함과 안일함 속에 있었던 모습을 화개하게 하신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데 어머니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 가르치면서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것도 눈물로 화개하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중보기도한다.

처음에는 많은 어머니가 자녀 문제로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기도회를 찾는다. 하지만 중보기도 과정에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기도제목, 대학청년부 11개 예배팀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된다. 대학청년부에서 사역하는 교역자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한다. 대학청년부 예배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중보기도한다.

다음세대로의 신앙 전수는 가장 중요한 선교의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세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독교 사학을 위해,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막 다시 시작된 대학청년부의 대면모임이 활성화되기를 기도한다. 또 영적 전쟁과 중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 시기가 다가온다. 이 중요한 시기에 중보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어머니들이 교회에 모여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2년이 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동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 110:3).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신다.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말이다.

권사칼럼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한숙영 권사
(2000선교 멤버케어
팀장, 이촌공동체)

“성도님들 앞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나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사역 때문에 힘들어서 선교를 그만두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 사역이 힘들고 현지에서 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선교사님들의 신앙이 더욱 불타오른다. 많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어떠한 모욕을 당해도 ‘내가 지금은 나에게 침을 뱉지만 반드시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한다.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관계다. 선교사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은 관계로 풀어야 한다. 때로는 ‘선교사가 기도해야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 ‘선교사가 그 정도 소양과 자질도 안 되냐’는 높은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다. 선교사님들을 성도들과 다른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선교사님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성도이고, 인간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사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800여 명 선교사님이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물질과 기도는 늘 넉넉하면 좋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또 다른 섬김을 소개하고 싶다. 바로 선교사님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선교사님이 어떠한 속 이야기도 허심탄화하게 나눌 수 있는 든든한 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한 선교사님이 몹시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2000선교본부에서 급하게 선교지로 찾아갔다. 그 선교사님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성도님들의 후원금으로 생활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여가를 보내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안식년이나 휴식차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주일에 교회 근처에 와도 커피숍에 들르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 가끔 좋은 식당에서 한 끼 잘 먹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짐이 더 크다고 한다.

지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싱글 여선교사들과 함께 제주도로 힐링캠프를 다녀왔다. 말 그대로 힐링을 했다. 날씨가 무척 오락가락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도도 둘러보고, 우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성도님의 후원으로 자연산 참돔회도 듬뿍 먹었다. 제주드림교회 권사님들의 섬김으로 맛있는 김밥도 먹었다. 가장 귀한 시간은 나눔이었다. 30분이 1시간이 되도록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나누셨다.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짐과 숙제를 모두 내려놓으셨다.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께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다. 세상은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후원도 좋고 기도도 좋다. 하지만 선교사님들께 친구로, 언니로, 동생으로, 형으로 다가가 보는 것이 어떨까. 시시콜콜한 이야기, 차마 성도님들께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공동체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간증과 나눔을 듣고 있다. 한 번쯤 선교와 사역 이야기를 내려놓고 ‘시장은 가까운지’, ‘현지 밥은 먹을 만한지’, ‘여가에는 무엇을 하는지’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2000선교 멤버케어팀 모집

문의: 010-5315-8729

신앙에세이



이상욱 전도사
(양재 차세대)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온누리교회를 다녔다. 온누리교회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다. 나에게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놀이터 같은 곳이다. 온누리교회에서 나는 마치 바다를 누비는 크루즈 여객선 위에서 맛있는 식사와 물놀이를 하며 뛰어노는 아이와 같았다. 온누리교회 카페에서 생크림을 퍼먹었던 기억, 매주 주일 아침마다 라면 자판기로 향했던 일, 친구들과 함께 집회에 가서 뜨겁게 예배드렸던 추억, 소그룹 선생님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까르르 웃으며 행복해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내 마음

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다. 온누리교회에서의 사역 그 자체가 내게 너무 뜻깊고 감사한 일이다. 어릴 적 신나게 뛰어 놀던 온누리교회에서 이제는 예배를 이끌어 가는 영적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다. 어릴 적 내 모습이 크루즈 여객선 위에서 즐겁게 뛰놀던 어린아이였다면, 전도사가 된 지금은 온누리교회라는 커다란 배 밑 깊은 곳에서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선원이 된 것 같다.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어린 성도들이 있는 영아부(생후 18~40개월)를 섬기며 선원으로 서의 첫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사역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 그 어두웠던 상황에서도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이었다.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성도가 세워가는 온누리교회

사랑과 인내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부서를 섬겨주셨던 선생님들의 손길이 나에게 큰 위로였고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선생님들의 섬김이 단순히 내가 경험했던 부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온누리교회에는 성도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차세대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온누리교회 곳곳에서 성도의 손길이 가득하다는 것을 사역하면서 경험할 수 있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가 함께 나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셨을 때 비로소 깨달은 사실이 있다. 내가 어릴 적 교회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차세대 부서를 섬기면

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생님의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랑과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한 아이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어린 시절 신나는 곳으로만 알았던 온누리교회라는 크루즈 여객선 안에는 많은 성도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있다. 선원으로서, 요리사로서, 청소부로서 각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배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섬김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한다. 모든 성도가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친구들이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는다. 섬김의 이유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뒷부분에 반드시 구체화 되어서 나타나고, 당대 사람들은 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은 미리 약속된 소식입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직 성경에만 예언이 나옵니다. 2천 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나라, 지명, 사람 이름까지 등장하는 구체적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고대 역사를 구약성경과 대조해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등장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한 이후 1백 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레바논의 옛 도시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주전 6세기에 이루어졌는데, 두로라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가 다니엘에게 주어졌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고, 애굽(이집트)은 열등한 나라로 계속될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이 당시 이후 경제대국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2천여 가지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터 스토너’라는 과학자가 <Science Speaks>라는 책을 썼는데, 구약의 예언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200여 가지가 넘는데 8가지 예언 성취의 가능성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의 17승분은 미국 텍사스주 전체에 동전을 1m 높이로 쌓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 많은 동전 중에 하나에다가 표시를 하고 동전을 켜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중형무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멈추고 내리자마자 동전 하나를 들었는데 표시해 둔 동전을 발견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확률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있었던 여덟 가지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이 그 정도라는데 48가지 예언의 성취에 관한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넷째, 복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모든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인정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 존재가 부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사람의 아들로 낮아지심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 주셨구나”라고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르시는 소식

다섯째, 복음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고 순종해서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르시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5절). 복음의 범위는 열방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 십자가에서 죽

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 오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아들에 관한 소식이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6-7절).

복음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리 약속된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에 대한 복음이 우리를 그분께 속한 자가 되게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이들은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충만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동역자 모집

사회선교부 25개 사역팀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 대상

사회선교부에서 동역자를 모집한다. 구제, 공휴, 환경 보호, 경제정의 등에 관심 있는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회선교부는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소외된 약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공휴선교사역’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신설됐다. 5개 영역 25개 사역팀이 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

문의: 02-3215-3434, 3436
010-9478-7124(본부 팀장)

통합팀	사역팀	사역 소개
사회책임	일.하.세	일터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한 사역(특강 및 일.하.세.아카데미)
	청년벤처	청년 벤처사업팀 발굴, 멘토링 및 어벤처스 대회 진행/주관
	경제정의	성경적 재정관 연구 및 부채상담 지원
	생명과환경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창조질서회복사역
	나그네돌봄사역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 이주민, 탈북민 돌봄사역
사회봉사	서빙고 농어촌선교	(서빙고) 농어촌교회 지원 및 농어촌해외근로자, 다문화, 결손아동선교사역
	양재 농어촌선교	(양재)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재정후원, 재능기부 등)
	서빙고 이웃사랑	(서빙고) 구제공휴, 독거노인 섬김,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양재 이웃사랑	(양재) 구제공휴, 청소년쉼터, 노숙인교회 지원,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서울역희망공동체	거동이 불편한 동자동 쪽방 주민의 말벗과 돌봄사역
	남대문희망공동체	서울역 인근 쪽방촌, 노숙인 섬김, 예배 및 양육 사역
	나눔장터	성도들이 기증한 의류, 생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선교사, 어려운 이웃 구제사역
사회나눔	오병이어	소외된 어르신들 대상 일대일제자양육, 큐티, 멘토링 사역
	엔젤트리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사역
	아트비전	대내외적인 전시, 지역성김 미술교육, 소외계층 협력교육 사역
	은빛날개	은퇴 전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사역
	다문화	결혼이주 다문화가정과 차세대 돌봄, 포천하랑센터, 협력교회 등 섬김
사회화합	맘애크스	싱글맘(미혼양육모, 다문화, 탈북민)의 자립지원과 멘토링 사역
	새사람사역	교도소에 복음으로 변화와 성숙을 돕는 사역(일대일제자양육, 큐티, 멘토링)
	선한올타리	보육원 아동을 응원하며, 시설외소생의 자립을 돕는 사역
	제이홀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위한 입양 및 위탁 지원 사역
	한누리	온누리교회의 탈북민 사역 및 통일한반도를 위한 건강한 크리스천 양성
한누리(탈북민)사역	하나원사역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지원 사역
	한터공동체(강서)	탈북 지체들과 함께 하는 예배 공동체(강서구 소재)
	하나공동체(양재)	탈북 지체들과 함께 하는 예배 공동체(양재 소재)

서빙고

0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5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402호, 매월 첫주 군포하나로센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5: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에코 주일 11:00, 14: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에코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위웨이트 14:00 705호, Zoom / 꿈땅

11:00 706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예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6월

개강)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CMN 미용스쿨 초급반 모집

내용: 가위 사용법, 기초 컷팅, 기본파마

일시: 6월 3일~28일(매주 화, 금), 양재 오전

반 오전 10~12시 양재 JDS홀, 서빙고 오후

반 오후 2시~4시 서빙고 B102호

수강료: 8만 원(간식 제공)

재료비: 20만 원(가위 세트, 파마 도구 일체,

컷트보 등) ※재료가 있는 분은 제외

신청: 문자 또는 아이스쿨

문의: 정선 팀장(010-9034-5369)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 모집

예배 및 소그룹: 11:00~13:30

대상: 초등 4학년~중학생

위치: 1호선 평택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평택온누리M센터 O.G.A. 봉사자 모집

대상: 초, 중, 고, 대학교 입학에 준비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모집: 한국어, 미술, 악기, 미술치료, 음악치

료 수업

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00~3:00 /

화~금(주 1~2회 수업)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온누리선교재단 사원 모집

1. 양지Acts29비전빌리지 단체급식 업무

근무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

조리사자격증 우대

2. 45인승 버스 운행 및 차량관리

근무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자격: 대형1종 면허 소지자(경력 3년 이상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접수: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선호 총무팀장(02-3215-3101)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0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성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체플러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모집

대상: 공동체 참여가 어려운 온누리

교회 성도

신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문의: 02-3215-3214

일대일양육자반 양재 주일 박동현

장로반

신청: 6월 4일까지

일시: 6월 5일~9월 25일 매주일

1시 30분~4시

장소: 양재 이스라엘홀

문의: 02-570-7349

NGO 더멋진세상 단기사역자 모집

사역: 르완다, 말라위, 세네갈에서 회

계, 교육, 농업, 교회 사역 등 담당

기간: 1~2년

문의: 070-4402-501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매장관리 및 판매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사용기간 3개

월), 주5일 근무(주일근무 가능자)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부 천

0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첫 달엔 무료

du+ duplus

크리스천 콘텐츠를 구독하다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지금! 구독으로 시작되는 디지털 플랫폼

회원가입 하고
2,000 포인트
받으세요!

2022.5.20~6.30

구독이
처음이세요?

4가지 멤버십
구독 플랜 중에서
나에게 맞는
구독 플랜을 선택하시면
한 달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어요.

두플에만 있다!
온리Only
콘텐츠

성우가 직접 낭독한
오디오북부터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클래스까지
오리지널 복음 콘텐츠를
경험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내서재 &
아카이브

보고, 듣고, 기록하며
신앙 루틴을 만들고
필요한 성경·목회 자료를
검색하세요.
생명의삶부터 PLUS까지
모두 이곳에! (2022년 1월호부터)

함께하면
감동이 2배,
커뮤니티

작심삼일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성경일독 #모닝큐티
#매일기도 #한달독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챌린지에 도전하세요!

단체 구독 문의 1년 단위

신앙 성장을 원하는 모임, 교회, 선교단체 등의 단체 구독을 기다립니다. duplus@duranno.com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